

### III 밀레니얼 세대 간호사와 소통하는 법

유튜브로 학습하고, SNS로 표현하는 세대  
명성보다 커리어에 도움 되는 직장 원해  
업무강도 대비 급여수준 적정한가 중시

‘서로 다름’ 이해하고 소통하며 함께 가기  
정시 출퇴근과 워라벨 지켜주는 조직문화  
입사동기와 함께 여행하도록 지원해 호응

밀레니얼 세대 간호사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현장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병원간호사회(회장 박영우)는 2019년 간호정책 포럼을 수간호사 이상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9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법’ 주제로 강연한 김성희 CEO리더십연구소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베이비부머, X, 밀레니얼 세대 간의 소통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판매 같은 리더나 버릇없는 후배가 많아졌거나, 좋고 나쁜 또는 옳고 그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로 한 팀이 공모전에 참여해 상금을 받았을 경우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금으로 회식을 하고, X 세대는 팀원이 똑같이 나눠 가졌다면, 밀레니얼 세대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김성희 소장은 “유수한 기관에 근무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밀레니얼 세대는 조직의 규모와 명성을 이야기 할 때 공감하지 않으며, 자신의 커리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때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일을 줄여주고,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나눠서 가르쳐줘야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주고, 지시와 지원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연희 병원간호사회 제1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문남경 서울아산병원 수간호사는 “간호사 각 개인의 강점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고, 구

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중시하는 정시 출퇴근과 워라벨을 지켜주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욱 서울대병원 수간호사는 “업무강도 대비 급여수준이 적정한가, 연차에 따른 보상이 있는가를 중시하며,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세대”라면서 “학업·육아 등을 고려해 원하는 근무스케줄을 최선을 다해 맞춰주고 있으며, 밴드를 통해 간호사들의 소확행은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책임간호사는 “밀레니얼 세대는 선후배 보다는 동료라는 의식이 강하고, 합리적인 업무분배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업무분장, 적절한 업무지원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정훈 세브란스병원 책임간호사는 “유튜브로 배우고, SNS로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세대”라면서 “교육자료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만들고, 카톡 등 SNS를 통해 근황을 살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로 바라만 봐도 힘이 되는 입사동기들과 함께 ‘동기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근무스케줄을 조정해줬는데,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진보건 SK텔레콤 기업문화센터 팀장은 “기존과는 ‘다른’ 밀레니얼 세대가 사회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이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맡았을 때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대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자”며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다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 서울시간호사회 - 동경간호협회 교류

일본 동경간호협회 임직원들이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를 9월 1~4일 방문했다. 동경간호협회 야마모토 게이코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8명이 서울에 왔다.

두 단체는 2004년부터 양국을 교대로 방문하며 간호발전을 위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에 대한 교류의 역할’ 주제로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야마모토 동경간호협회장이 ‘일본 지역포괄케어 시스템과 간호직의 활동’, 이인숙 서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한국의 통합돌봄 서비스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 행정보건의사의 역할, 일본 병원간호사의 역할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으며, 양국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남구 치매안심센터, 서울아산병원(가정간호), 중구보건소 등을 방문했다.

박인숙 회장은 “양국 간의 의미 있는 교류의 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을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로 지정한 만큼 한국과 일본의 간호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 인사 한수영 세브란스병원 간호담당부원장

세브란스병원 제7대 간호담당부원장에 한수영 외래간호팀장이 승진 임명됐다. 9월 1일자.

한수영 신임 간호담당부원장은 1986년 연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 연세대에서 병원행정학 석사학위,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사한 이래 심장혈관센터 병동 파트장, 알센터 초대 간호팀장, 연세암병원 외래간호팀장, 세브란스병원 외래간호팀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시간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중장간호학회 이사, 서울시간호사회 세대문구간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 같은 풍부한 임상 경험 및 학술적 지식,



활발한 대외활동을 바탕으로 세브란스병원 간호의 국제화와 표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영 간호담당부원장은 “진정성, 창의성, 탁월성, 협력, 공감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시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간호의 전문성 향상과 역할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www.RNjob.or.kr ☎ 1522-1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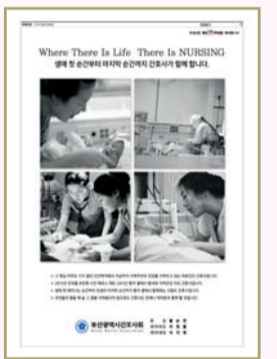
### 지역사회와 소통... 간호사 인식 개선

부산시간호사회, 홍보활동 적극 펼쳐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간호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부산시간호사회는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 광고를 지역 일간신문인 국제신문(9월 2일)과 부산일보(9월 5일)에 게재했다.

이미지 광고는 ‘Where There Is Life There Is NURSING: 생애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사가 함께 합니다’ 타이틀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 신문에 기고문을 실었다.

도심 전광판 광고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제작한 공익광고인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국민’ 및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영상이 상영됐다. 지역신문 광고에서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간호사 인식개선 포스터인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4종을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와 함께 실었다. 또한 ‘국제간호사의 날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며’ 주제로 황순연 부산시간호사회장이 기고했다.

지난 8월에는 광복절을 기념해 대한간호협회에서 전개한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해 지역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 경북대 간호학부 봉사동아리... 치매파트너 단체 최우수상

경북대 간호학부 봉사동아리 ‘MATCH’(회장 김정현·송예지, 지도교수 박영선)가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 치매파트너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치매센터 주관으로 9월 20일 열렸다.

봉사동아리 ‘MATCH’는 2015년 경북대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극복

캠페인 및 환경개선활동 등에도 참여해왔다. 김정현 MATCH 회장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고 보람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치매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방문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MATCH는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가정방문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SNS 홍보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유주 기자 yjchoi@

캠페인 및 환경개선활동 등에도 참여해왔다.

김정현 MATCH 회장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기쁘고 보람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치매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방문봉사활동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MATCH는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가정방문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SNS 홍보활동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유주 기자 yjchoi@

### 경북간호사회 '안전한 간호현장 위한 법과 윤리'

경북간호사회(회장 신용분)는 2019년 간호행정자 세미나를 ‘안전한 간호현장을 위한 법과 윤리’ 주제로 9월 18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간호협회가 개발한 순회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간관리자 이상 간호사 134명이 참석했다.

‘의료법과 간호정책’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간호정책의 역사를 살펴보고, 최근 간호정책의 이슈 및 쟁점, 의료법 변경과정, 간호법안 및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간호 과실과 판례’, ‘간호

사의 안전과 인권보호’ ‘간호실무와 법의 기초’ ‘간호대상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신용분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간호현장에서 간호사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ilee@

### 대한웃음임상학회 웃음임상전문강사 교육

대한웃음임상학회(회장 박정인)는 ‘2019 웃음임상전문강사’ 교육을 9월 21~22일 이화여대 웰빙관에서 개최했다.



교육은 ‘근거기반 웃음연구’, ‘직무스트레스 웃음치료’, ‘웃음과 뇌과학’, ‘웃음프로그램 구성법’ 등 최신지견의 웃음이론과 실제적인 임상 적용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정인 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근거이론 확립과 웃음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면서 “회원들부터 시작해서 웃음으로 국민들을 위로하고 건

강하게 만들자는 ‘웃음의 동심원 파도타기 운동’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자에게는 학회의 ‘교육수료증’과 한국웃음임상치료센터의 ‘병원웃음코디네이터 1급 자격증’이 수여됐다.

최유주 기자 yjchoi@

## 대한간호협회

Korean Nurses Association

# 대한간호협회와 “카톡 플러스친구” 맺기

**카톡으로 소식받고 카톡으로 확인하자! 협회 소식이 여러분께 직접 찾아갑니다.**

**1. 친구찾기 메뉴 고르기**

상단 검색창 버튼클릭

카카오톡 친구리스트 하단 상단의 검색창을 터치해주세요

**2. '대한간호협회' 아이디 입력**

ID/플러스친구 검색

아이디 입력란에 "대한간호협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3. 친구추가 완료**

친구추가 버튼클릭

친구추가 버튼을 눌러 친구추가를 완료합니다.

**ID : 대한간호협회 를 친구 추가해주세요!**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간호뉴스, 교육정보, 공지사항 등을 카톡으로 받아보세요.